

민주노총은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실태 조사와 설문 조사에 근거한 왜곡을 중단해 주십시오

2021. 9. 30.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쿠팡 물류센터 야간 근로 실태는 측정 방식이나 발표 내용이 부정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 많습니다. 노조가 주도한 이번 측정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측정 환경의 객관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조가 선택해서 측정한 인원 13명은 전체 물류센터 근무 인원의 0.04% 정도에 불과할 뿐더러 대상자들의 연령이나 평소 심장 기능 등 건강 상태, 구체적인 근무환경 등이 어떠한 지도 알 수 없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대상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측정에 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공개된 일부 수치를 제외하곤 측정의 상세 수치 등이 공개 되지 않아 측정 전모를 알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주~4주 가량, 1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로 측정'했다고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24시간 단위로 수백 건을 측정한 것으로 추정 가능함에도 공개된 수치는 그중 평균치가 가장 높은 몇 건 뿐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숫자를 편집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학박사)도 "측정 대상 직원들이 물류센터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 당시 신체 및 심리 상태에 따라 변동폭이 상당한 심박 수를 바탕으로 적정 근무시간을 언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렬 교수팀이 조사 발표한 또 다른 물류센터 실태조사도 민주노총 노조원 및 민주노총 노조원이 주도하는 특정 SNS 회원들이 주로 참여한 설문조사로, 편향된 답변만을 담아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초 설문 홍보와 참여 경로가 노조 조합원만 가입 가능하거나 노조원이 주도하는 온라인 카페와 밴드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장 설문조사와 측정도 노조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전문가들은 설문 문항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강도에 대한 질문 항목은 '빨리 걷는 수준의 힘듦' 이상의 힘든 정도로 '100M 달리기 수준의 힘듦'과 '마라톤처럼 체력이 고갈되는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애초 부정적인 답변을 높이려고 한 의도가 보이며,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등과 같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항목을 두지 않는 등 부적절한 항목도 보입니다.

일일 근무자가 3만 명이 넘는 물류센터에서 민주노총 노조원이거나 노조에 편향된 채널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356명의 주관적인 의견과 일평균 근무 인원의 0.04%에 불과한 특정 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며 목적이 있는 방식의 측정은 실제 근로환경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주장	사실
심박수 변화로 판단한 노동 강도	<p>심박수를 측정한 13명이 물류센터 근로자의 상태를 대표하지 않습니다.</p> <p>쿠팡 물류센터는 하루 3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곳으로, 소수 인원이 근로자의 상태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박수는 측정 당시 신체와 심리 상태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단순 심박수 변화로 노동강도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측정한 대상자들이 공정한 상태와 환경에서 측정했는지도 의문입니다.</p>
높은 심야 노동 강도	<p>쿠팡 물류센터의 야간 근무시간은 타사 물류센터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p> <p>타사 물류센터의 야간조 근무시간은 12시간~14시간(통상 저녁 5시~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8시)이나, 쿠팡 물류센터의 야간조 근무시간은 9시간(통상 저녁 7시~다음날 오전 4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정도로, 타사 물류센터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p> <p>쿠팡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센터별로 추가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물류센터 상황에 따라 직원은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자유롭습니다.</p>
높은 노동 강도	<p>대한산업보건협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물류센터 근로자의 73%가 근육통 같은 근로격계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p> <p>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업무강도 설문조사에서 주요 물류센터 근로자의 49.4%, 68.2%가 일이 ‘전혀 힘들지 않음’ 또는 ‘견딜만함’으로 응답했고, 26.7%, 19.6%는 ‘약간 힘들’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주요 물류센터 응답자의 73.2%는 ‘지난 1년 동안 작업과 관련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p> <p>쿠팡 물류센터는 풀필먼트서비스(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에 따른 물류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현장 근무자의 약 48%(2021년 7월 기준)가 여성이고, 현장 상용직의 약 25%(2021년 7월 기준)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통상적인 택배사들의 하역 및 적재 업무와는 달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습니다. 또 상하차 물품 분류 등 타 택배사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업무의 자동화, 작업대 높낮이 조절, 작업 동선 최적화 시스템 등을 통하여 노동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등 건강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들에게는 4주간 유급으로 쉬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쿠팡케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p>
정신건강에 안좋다	<p>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p> <p>주요 물류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직무스트레스 평가 총점이 전국 근로자 평균 대비 하위 25~50%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쿠레스트)을 도입해 근로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p>
적은 휴게시간	<p>쿠팡은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별로 추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p> <p>쿠팡의 모든 물류센터는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별 여건에 맞춰 다양한 추가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냉동창고 근무자의 경우 시간당 최고 15분까지 추가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혹서기 대책 부족	<p>쿠팡은 근로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탈진, 탈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p> <p>쿠팡 물류센터는 직원들에게 작업장과 휴게실 내 냉방과 보냉시설, 시원한 음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며 일하고 있습니다.</p> <p>작업장에는 대형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에어씨클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공기 순환 및 냉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내외부 휴게장소에도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의 냉방시설을 구비 및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쿨도시, 쿨스카프와 같은 보냉장구 및 얼음생수를 제공합니다. 매일 시행 중인 작업 10분 전 교육 등을 통해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p>
과도한 성과 달성과 마감시간 요구	<p>쿠팡은 근로자들에게 성과 목표 달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별 UPH를 모든 시스템에서 제거했습니다.</p> <p>쿠팡 물류센터는 마감시간 준수 등을 위한 개인별 성과 목표나 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 관리자의 장비(PC, PDA)에도 개인별 UPH가 표시되지 않습니다.</p>
3,9,12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존재	<p>쿠팡은 물류업무 종사자 100%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율도 95%에 이릅니다.</p> <p>타사 물류센터의 경우 대부분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있어 노동관계법령 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반면에, 쿠팡 물류센터는 근로자를 직고용하고 있어 노동관계법령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p> <p>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근로계약(80~90% 이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p>
화장실 사용 제한	<p>쿠팡은 물류센터에서 화장실 사용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p> <p>쿠팡의 모든 물류센터, 모든 사업장에서 화장실 이용은 자유롭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지금까지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지적을 받은 적 또한 단 한번도 없습니다.</p>